

## 협회개혁방향의 모색

Grope For The Direction of KIRA Reformation

金泰雄/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협회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by Kim, Tae-Woong

### 글머리에

대한건축사협회는 올해로 창립 30주년의 역사를 맞이하고 있다. 6·25의 폐허속에서 오늘날과 같은 세계속에 발돋움하는 부강한 한국을 건설하기까지 협회를 중심으로 모든 건축사들이 흘린 피와 땀의 공헌은 실로 자부할만 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과는 아랑곳없이 불행히도 최근 발생된 부실건축으로 인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하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건축의 선봉으로서의 공적은 후세의 역사가 평가해 주리라 믿는다. 한편 그동안 건축의 역사를 주도하지 못한 채, 타율에 의한 순응으로 오늘의 긴박한 상황과 유리된 채 안주해 온 점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이 따라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WTO체제의 출범과 UR에 따른 시장개방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맞이하는 획기적인 사태이며 도전인 것이다.

선진 미국과 EC등이 주도한 WTO체제의 출범은 외형적 논리는 공정한 듯 보이나 내용적으로는 그들의 우수한 기술과 막강한 경제력을 후

발국들에게 무자비한 힘의 논리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경제적인 힘의 논리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는 국제화에서 세계화로 생존전략을 개편하기에 바쁜 현실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역사상 체험하지 못한 엄청난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 인식의 부족이 준비태세의 결여로 나타나고 있는 데 있다. 이제는 무력에 의한 세계제패가 아닌 우수한 기술과 경제력, 외래문화를 통한 문화침투로 문화환경의 지배를 경계하며 경제력의 고사를 극복해야 하는 심각한 사태로 인식되어진다. 그 나라의 건축문화는 그 나라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간직하여야 하고, 그 나라의 환경과 같은 맥락 속에 고유의 전통성이 투영되어 발전되어 가는 것이 바른 길일 것이다. 앞으로의 상황은 예상컨대 WTO체제에 의

한 힘있는 선진국들이 세계화의 미명 아래 고유한 지역건축과 문화들을 붕괴해갈 것이며, 그 반대급부로 선진국들의 부를 늘려주게 될 것이다. 현대의 건축설계는 첨단 기술과 공법이 요구되며 고도의 경영전략이 수반됨으로써 경제전쟁의 승패에 있어 더욱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다고 본다. 그 예로써 동남아 제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중 규모가 10억불을 넘는 사업만도 대략 40건에 달하는 데 이 사업들의 대부분이 미국과 EC제국들에 속한 설계사무소에서 수주한 사실만 보더라도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배경으로 봤을 때 이제 대한건축사협회는 96년부터 본격화 될 건축설계 분야의 개방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금 협회는 모든 지혜와 중지를 모아 제도개선과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개혁작업을 통해서 이 나라의 건축을 책임진 건축사들은 새로운 의식의 전환과 신속한 자기개발은 물론, 분산된 에너지의 결집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개혁의 방향

협회는 우리나라 건축분야의 중심체로서의 지도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모든 체제와 조직을 정비하고, 건축에 관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건축에 관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능력과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나아가 WTO체제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와 남북통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새로운 차원의 시야를 가지고 분산된 역량을 집결시켜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세계를 향한 웅비의 나라를 펼쳐야 한다.

### 개혁의 개관

협회의 개혁에 대한 큰 인식은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우리 국민들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신장시키는데 투자되

어야 하고, 그 결과는 건축, 도시, 환경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이는 곧 우리의 경제적인 풍요를 문화의 창달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데 있다. 건축사들은 이 역사의 전환점에서 성숙한 건축문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감동과 환희 그리고 국민적 자부심을 심어 줌은 물론, 유한한 경제적 가치를 무한한 가치의 건축예술로 승화시키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아울러 후손들에게는 존경받는 세대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들에게는 세계화를 향해 의연하고도 당당히 나아가야 할 여러가지 사유가 있다. 앞선 기술과 경제력은 우리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역사적으로 우리에게는 단군성조의 홍익인간과 같은 드높은 사상이 있고, 석굴암의 깊은 사유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해인사에는 팔만대장경이 보존되어 있고, 도산서원에는 퇴계학이 살아 숨쉬고 있으며, 풍수지리학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유구하고도 엄청난 문화유산을 지닌 우리가 그들의 문화와 맞서 두려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개혁의 과제들

이 시대가 요구하는 협회로 신속히 개편 내지 개혁되기 위해서는 크게 3부분에 걸쳐 개혁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 첫째는 협회를 운영해 갈 제도, 조직 운영부분이고, 두번째는 이 분야에 종사할 인적구성 문제이며, 세번째는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방법과 배분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 — 제도, 조직 운영부분

회원들에게 봉사하는 체제, 경영마인드를 가진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고 전략을 구상하는 체계적인 조직체계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 회장의 임기에 따라 중단되거나 바뀌어졌던 지금까지의 협회운영 체제를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리하여 건축의 중심으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정관개정, 조직체계의 변화, R&D 사업, 공제사업, 도서신고대안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 — 구성원의 문제

변경된 조직체계에 따라 인적구성이 변화될 것이며,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협회 구성원들에게는 앞으로 회원들을 위한 봉사와 자체조직의 자급자족을 뛰어 넘는 경영마인드가 요구되어질 것이다.

또한 경영실적에 따라 각자 능력의 차등이 구분되어질 것이다. 이는 앞으로 협회의 확대 개편과 자금조달의 한계를 고려할 때 당연한 귀결로 판단된다. 앞으로 예상

되는 협회의 조직과 운영은 다양성과 전문성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전문경영기법이 도입되고, 전문경영인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협회의 조직과 운영은 탄력성과 순발력을 가지도록 재편될 것이며, 이에 조화될 수 있는 구성원이 요구된다.

### — 자금조달과 배분 문제

협회발전에 따른 기구의 확대 개편은 불가피할 것이나 경제성이 요구될 것이다. 각 조직의 경영마인드에 따른 자금조달이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분산되어 있는 협회와 회원들의 잠재력을 배양하고 결집시키는데 협회가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자유 시장경제라는 입장과 공정거래법에 따른 규제에 의해서 전국에 만연되어 있는 설계 감리비의 덤핑현상을 방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회원들과 협회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리라 본다. 이는 건축사들을 피폐시킴은 물론 협회발전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건축사들을 피폐시킴은 물론 부실설계와 감리의 근본원인임을 감안할 때 관계자들의 각성과 협조 아래 협회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덤핑으로 인한 건축사들의 소진된 경제적 역량으로는 더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는 세계화의 작업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의 건축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덤핑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통한 경제역량의 배양을 통해서 세계화 작업의 핵심인 R&D사업을 신속히 추진시켜야 할 것이다.

## 결언

WTO체제라는 경제전쟁을 통해서 신패권주의가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의 건축부분만은 패배가 아닌 찬란한 승리를 쟁취해야 할 것이며, 이 승리의 면류관을 국민들과 후손들에게 반드시 넘겨 주어야 한다. 그 까닭은 이 나라의 건축과 도시가 신패권주의에 의해 붕괴된다면, 이 나라의 삶과 문화 그리고 환경은 그들에 의해 장악될 것이며, 이 나라의 정체성은 고사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건축과 도시를 지키고 높은 이상과 철학으로 신패권주의가 아닌 세계의 인류와 평화를 위하여 우리의 높은 사상과 문화를 세계에 전파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높은 사상과 문화, 예의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도할 국가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 역사의 중대한 시점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역사의 당위이며, 세계화의 요체일 것이다.